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차영호	학번	
이메일	briancha@lh.or.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 (국가) U.S.A 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기 간	2017. 1. ~ 2017. 12.	[귀국일: 2017년 1월 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2월 26일

신 청 인 : 차영호 (인)

1.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Raleigh-Durham-Chapel hill 지역은 미국동부의 중소도시이지만, Research Triangle Park(RTP)라고 불리는 IT, Bio 등 첨단연구개발단지가 있어 고소득 전문직이 많이 거주하며, 생활비가 미국 전체평균의 약 101%로 저렴한 편이고, 명문 공립대학인 University of North Carolina(UNC)와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가 포진해 있으며, 남부 최고의 명문사립대학인 Duke University 등 우수한 교육환경 덕분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안에 항상 rank 되는 곳임.

기후는 사계절이 있으나 여름이 길고(5월부터 10월까지), 겨울이 평균 10°C 정도로 온화하여 살기 편하고, 지리적으로 서쪽 4시간거리에 Great Smokey Mountain 등 산,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Carolina Beach 등 대서양이 접해있어 여행하기 좋음. 특히 북쪽으로 Washington D.C가 4시간거리에 있어, 주말에 자녀들과 박물관과 투어하며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좋음.

자녀의 공립학교는 North Carolina주의 공립학교 재정수준이 낮아 선생님들의 연봉이 낮은 편이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실제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RTP지역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높고, 학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유명 학군도 있을 정도로 공립학교의 수준이 높은편이라고 하겠음.

2. Duke대학은 2017년 Wall street Journal(WSJ)이 선정한 Top US College에서 하버드, 콜롬비아, MIT, 스탠포드와 함께 5위에 rank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졸업 후 연봉 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제가 수학한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는 Harvard Kennedy School 출신 교수님 들이 주축이 되어 하버드에서 들여온 Tax Policy와 Public Finance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의 질이나 교수진의 수준은 타대학을 경험해보지 못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교육인프라는 명문사립답게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교육생들의 수준이 높아 학생들끼리 배우는 부분이 크며 한국 학생들은 기획재정부 등 Finance와 Tax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편임.

3. 첫 봄학기가 현지에서는 second semester임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수강하지 않으면 버거운 과목들이 있어서(ex. Applied Economics, Impact Evaluation 등) 이와 관련된 미시/거기경제, 통계학 과목은 반드시 KDI에서 수강하고 오기를 권함.

기본적으로 30학점(9과목+master project)을 수강해야 하므로 봄학기에 4과목, 여름학기에 2과목, 가을학기에 3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을학기에는 master project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함.

참고로 여름학기는 1과목 이상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은 1과목만 수강하여 여름학기 등록금 약 \$4,500을 절약할 수 있었기는 했지만 2학기에 4과목을 수강하면서 master project까지 마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랐음(삶이 피폐해지고 가족관계가 멀어짐). 따라서 academic advisor가 알려주는 데로 여름학기에 2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하는 바임.

대부분의 과목이 과목당 과제 2~3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서 학기 중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보면 되고, 때로는 주말에도 팀별과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쉽지 않겠지만 혼자 끙대지 말고 똑똑한 class mate들을 많이 사귀어서 그때그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도움받는 것이 중요함.

4. Duke는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근 지역에서 주거를 각자 알아봐야 함. 가장 인근의 Durham지역은 과거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으나, 주요 산업이었던 담배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은 치안이 좋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기엔 학군이 좋지 못함. 단, 아이가 없을 경우엔 캠퍼스 인근에 rent 저렴한 apartment가 많아 대부분의 외국학생들은 이런 아파트를 선호함.

캠퍼스에서 파는 음식은 미국음식이 늘 그렇듯이 먹을 것이 없으면서 비쌌. 한국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간단한 샌드위치 등을 싸와서 같이 도시락 먹듯이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Sanford School 맞은 편 Fuqua Business School의 1층 cafeteria에 가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고기덮밥 코너가 있어서 종종 이용했음.

5. Duke학생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강좌나 듀크의 상징인 Chapel에서의 공연(<https://chapel.duke.edu>), 농구경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풍요로운 학창시절이 될 것임. 특히 농구경기는 미리 학교에 문의하여 대학원생용 싼 티켓을 예약하여 관람 가능(본인한정, 가족과 같이 관련 원할 경우 일반티켓(약 \$70) 구매하여 일반관중석에서 관람).
6. GMP 2년차에 세계 최고수준의 석학과 교정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수학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음. 지금도 그때 만난 한국/외국 공무원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언젠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음.
7. 비자와 출입국은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으나, 이웃 Canada나 Mexico등으로 여행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I-20 뒷면에 Duke Visa Service 담당자의 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 것.

비자와 출입국 이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지 결정의 문제인데,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조용한 Chapel hill(캠퍼스에서 차로 15분 소요, <https://livability.com/best-places/top-100-best-places-to-live/2017/nc/chapel-hill>)에 많이 거주하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10~15%가량 비싸고 도시가 작아 다양한 미국생활을 원한다면 캠퍼스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Raleigh나

Cary(<https://livability.com/best-places/top-100-best-places-to-live/2017/nc/cary>)에 정착하는 것도 추천함. 링크의 Liveability.com에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0개 도시에 Rank 된 곳들임. Raleigh는 NC주의 주도로서 많은 공연와 문화행사, 베희시장 등이 열림(www.visitraleigh.com 참조)

그 외에 정착뿐만 아니라 생활정보, 무빙 인수/인계 등을 총망라한 다음카페 NC-Korean(<http://cafe.daum.net/ncvisiting>)이 이 지역 생활의 포탈이니 출국 전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가기를 권함.

8. Duke대학을 선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학업의 부담을 예상했었으나, 가을학기 4 과목에 과제 19개, 그 과제를 하기 위한 별도 session수강,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에다가 Master Project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음. 하지만 봄학기여름학기에 학점을 잘 안분한다면 본인과 같이 힘든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또한 학비가 비싸게 보일 수 있으나, 주거비용과 물가가 저렴하여 타 대학에 비해 비싸다고만 볼 수 없으므로 학비와 학업부담 때문에 Duke를 list에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승식	학번	
이메일	zolkova@gico.or.kr		

대학원명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Duke/ MIDP	(국가) 미국
기간	[귀국일: 2017년12월2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8일

신청인: 김 승 식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김승식" (Kim Seung-sik), with a small "(인)" in parentheses next to it.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KDI School과 협력관계인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Duke University는 미국 North Carolina Durham county에 소재하고 있는데, Duke University는 인근 Chapel Hill의 미국 최초 주립대학인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UNC) 및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와 함께 'Research Triangle'로 불리며 상호 협력 및 선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관련 지역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스 캐롤 라이나 지역은 대서양과 맞닿아 있고 위로는 버지니아 아래로는 사우스 캐롤 라이나 서쪽으로는 테네시 주와 가까이 있는 미국 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는 한국보다 다소 따뜻하지만 눈이 많이 와서 초중고 학교를 휴교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여름에는 기온이 상당히 높지만 한국보다 습도가 높지않아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더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채플 힐이나 캐리, 랄리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입국 전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음 카페나 블로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럽보다 채플 힐 등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학군, 학교 점수를 받고 있지만 실제 1년 정도 짧은 기간 방문하게 되는 KDI School 연계 과정의 경우 지나치게 구매 받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다만, 1년을 4개 시기로 나누어 각각 짧은 방학 기간이 있는 Year-round 과정과 2개월이 넘는 긴 여름방학과 짧은 겨울방학이 있는 Traditional 과정 중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채플 힐의 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중국인 아이들과 함께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플 힐의 경우 듀크 유학생 외에도 한국에서 공무원 및 기자 등이 6개월에서 1년정도의 Visiting Scholar 과정으로 방문하는 집단의 숫자가 많은데, 좋은 교류의 기회가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KDI School 연계 과정 학생들은 유사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대학 중심 지역이고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인종 차별이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며, 종종 교내외에 강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학생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어서, 자동차만 가지고 있고, 야간에 혼자 다니지만 않는다면 치안에 대해 그리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 새벽에 총소리가 나서 놀란 적이 한 두 번 있었으나 미국의 환경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치안 유지가 잘 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KDI School에서 1+1 과정으로 Sanford School로 가는 이들은 Sanford School 내 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MIDP) 전공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MIDP학위과정은 특별히 Sanford School 내 Duk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교육과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KDI School 연계 과정 학생들은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경험상 9월부터 1년의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지 않아서, 전년도에 먼저 한 학기를 지낸 학생 그룹과 다음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룹 사이에서 다소 소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지내기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Duke의 경우 대부분 정보전달을 학교 계정 이메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메일링 그룹에 빠져있지 않은 지 반드시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학생들 간 가장 활발한 의사소통은 Facebook 그룹 및 messenger를 통한 정보교환이며, KDI School처럼 학생(가족)간에 서로 초대하고 여행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KDI School이 더 좋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투입 시간 대비 교수진 및 강의의 질, 학습의 편의성 등). 다만, 활발한 토론과 3학점 과정도 대부분 일주일에 2시간씩 2번으로 약 4시간으로 운영되는 듀크 방식이 훨씬 학습량이 많고, 수업마다 준비해야할 과제량도 적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00페이지 내외의 관련 자료를 읽고 발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차 수업에서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힘들어서 학습효과가 낮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식 수업이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3-4장의 paper를 작성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목 선택시 본인의 강점, 관심에 따라 조정하기를 권합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본인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3개의 학기 동안 Masters Project라고 불리는 1+2 학점의 논문작성 과목까지 포함하여 총 30.5학점 14과목을 이수하였는데, 2년 과정의 학생보다 보통 1 과목 정도를 학기마다 더 이수하는 부담이 있고,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논문 작성이 시작되므로 미리 준비를 하여 시간 배정을 잘 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물리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논문지도 수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봄학기 1학점, 가을학기 2학점). KDI School 연계 과정은 2년차라는 점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인데, KDIS에서 공부하는 동안 논문작성 준비를 미리 몇 개의 주제를 놓고 준비한다면 더 용이하게 2년차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학과 관련하여 STATA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가면 관련 수업이나 Masters Project진행시에도 활용도가 높아 적극 권합니다. (TA를 통해 받는

기초가 아닌 실질적인 분석 준비를 하면 미국 수업에서 투입하는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기당 9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12학점이 기본인데 1년 과정 학생의 경우 총 30학점 이상의 졸업 요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한 학기에 14학점 정도까지 요청하여 신청 가능하나 학교에서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상 4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경우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학습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 것으로 판단하며, 1년 과정 학생의 경우 여름학기 3~6학점 수강이 의무인데, 본인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3학점 이수에 4400달러 가량 소요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7년 기준, 여름학기 3학점 포함 1년 과정에 학비 약 45,000달러 소요, 학교에서는 6학점-8,500달러 소요-이수를 권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 학기 이수학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과정 학생의 경우 권장은 하나 인턴십이 의무는 아닌데, 가급적 여름학기를 마치자 말자 본인이 선호하는 기관으로 인턴십을 참여할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인턴십 및 구직 지원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므로 학기초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고 협의한다면 만족스러운 인턴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본인은 가족을 동반하고 있어서 여름학기 이수 후 가족과 여행 시간을 가졌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UN, World Bank 등 각종 국제기관에 근무해 볼 수 있고 인맥을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독신자의 경우 필히 여름 학기 이후 유럽이나 뉴욕 등의 국제기관 근무를 권하고 싶습니다.
- 수업의 구성은 3 또는 2학점 과목(1학점 4-5번 수업의 과정도 있습니다)이지만 일주일에 2개 수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학습소요시간이 상당했고(수업마다 사전 준비가 요구되므로), 주말 야간에만 공부했던 KDI School보다 훨씬 많은 과제 량에 주말도 학교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 논문의 경우 보통 35-60페이지 정도의 Thesis와 Capstone의 중간 정도 수준의 실용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타 대학원에서 논문 작성을 경험한 본인도 보통의 Thesis와 유사한 수준의 시간 배정이 필요했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에 따라 요구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 학기 중에 지도교수 선정, 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2-3명 정도 교수진), 6월까지 Prospectus defense를 마쳐야 하고, 가을학기부터는 지도 교수와 시간을 조정하여 자주는 매주,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는 논문지도를 받고 11월 말까지 논문 초안 완성, 12월 초에는 public presentation을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는데 둘 다 다소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 배분하지 않을 경우 논문 작성이 가을 학기 귀국 준비 및 다른 과목 이수 등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오게 되므로 가급적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논문발표 및 수업종료이후에 별도의 졸업식이나 공식적인 행사가 없어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논문 발표를 졸업식으로 대체하였는데, 저를 포함 두 명밖에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타 년도에는 형식적이거나 학위 수여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내 기숙사는 없으며, 듀크 대학교의 학부생들은 대부분 캠퍼스 내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주로 East Campus에 가까운 더럼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학부생보다 인원이 더 많은 대학원생들은 West Campus 근처, 독신자의 경우 주로 학교 인근 더럼 지역,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선호하는 학군을 고려하여 더럼이 아닌 인근 채플 힐이나 캐리, 랄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 거리나 물리적 거리는 더럼, 채플 힐이 낫지만 최근에는 캐리, 랄리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어느 지역에 살건 자가용이 없이 대중교통(듀크 학생의 경우 무료 광역버스표를 받게 되며, 시내버스는 대부분 무료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은 시간까지 다니지 않아 실용적이지는 않다)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하여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경우 차량 두 대, 없을 경우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불편하지 않으며 유가가 한국의 절반이므로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주변의 경우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으나, 수업 시간 및 가정생활 등으로 보통의 학생들과 가족이 있는 학생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패턴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 한국 학생의 경우 대부분 Daum Café나 블로그 정보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주택이나 차량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가 힘들 경우 정착서비스나 인터넷 등 다른 경로로 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 미리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 도착하여 며칠간 호텔에 머물다가 좋은 조건의 Sublet이나 현지에서 충분히 방문한 후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본인이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은 대부분 미니밴을 선호하는데 가격이 다소 높으나 한국인들에게 넘겨받는 방법 외에 현지 도착하여 다양한 딜러십에서 구입하는 것도 다양한 차량, 한국에서 이용해 보기 힘든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5.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듀크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만약 학교 명성이나 학위에 큰 욕심이 없고, 외국 생활에 대한 경험에 더 중점을 두는 분들은 학업 부담이 덜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 비록 바쁘고 힘들게 지냈지만 GMP 2년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나

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할 경우 KDI School 학위를 입국하는 12월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기에는 설명과 본인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학위 취득 시점이 중요한 분들은 여름학기 즈음 미리 관련 이수학점 이수 신청 (본인처럼 야간 파트타임의 경우 12학점까지이므로 봄학기만 이수하면 학점 transfer에 문제가 없다.) 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6. -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

- 본인은 F비자를 선택했으나, 할 수 있다면 J비자가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J비자 소유자는 사회보장번호(SSN)이 나오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각종 생활에 유용한 카드 등 회원 가입에 상대적으로 더 편리한 반면에 F비자 소유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었습니다(F비자 소유자도 ITIN이라는 세금 납부 번호를 받아 SSN 대신 사용 가능하나 별도 신청해야 하고 번호 부여에 7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J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소속기관에 좌우될 것이기는 하나, 듀크의 경우 12/18에 공식적으로 수업 및 논문발표 등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주거, 차량 등 정리 후 출국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경우 미리 12월말 귀국이 아니라 1월 중순까지 늦추어 귀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인간다운 방식으로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귀국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는 바람에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시차적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은 국제 운전면허로 운전은 가능하나 6개월에 100만원 이상하는 자동차 의무보험료를 생각할 때 최대한 빨리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합니다(현지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보험료가 2배 수준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및 차량 등록 등 관련 정보는 NCDO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스
스로 느끼시겠지만 KDI School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좋은 지는 나가서 2차년도 학교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KDI School과정을 십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학습에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식 수업과 KDI School보다 찾는 프레젠테이션 페이퍼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유학생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무엇보다 가족과 동반하신다면 아이들의 학습 준비, 배우자의 영어 학습 준비, 또한 방학기간 또는 여행계획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짧은 유학생활을 더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